

# 코칭 세미나 소감

(느낀점과 목회에 적용하고 싶은 유익한 점)

제출자 : 전근영 목사

“코칭”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필자에게 있어서는 주로 “스포츠 코칭”의 개념이 먼저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 석정문 교수님의 “크리스천 코칭” 주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의 세미나일까 호기심도 컸다. 비록 한 주간 전체를 다 할애한 강의를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코칭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서 큰 유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세미나 전 예비 독서를 통해서 소그룹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의 가치와 방법들을 조엘 코미스키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경험했지만, 마음 속에 숙제처럼 남아 있던 부족함이 “소그룹 리더들에게 양질의 영적 공급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매주 정기적인 모임과 만남이 있었지만, 마음이 흡족할 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조엘 코미스키의 책에서 그것이 바로 “소그룹 리더 코칭”이 매우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그룹 리더 중심의 관심과 필요를 따라 영적인 성장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전인적인 코칭이야말로, 리더 한 삶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코칭 페이퍼를 준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소그룹을 리딩하는 사역을 위한 코칭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한 공급을 하는 탁월한 방안이고, 무엇보다도 소그룹 리더와 함께 동시대를 곁에서 걷는 영적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크리스천 코칭은 앞으로 목회에서 어떻게 소그룹 리더들을 코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보람 있고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지 중요한 목회 방향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석정문 교수님의 강의와 소그룹 워크를 통해서 코칭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코칭은 피코치가 현재 위치한 지점에서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세워서 함께 곁에서 걸으면서 피코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코치와 피코치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그룹 리더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강조하고 배웠던 바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 건강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건강진단을 통해서 목회자와 교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 또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 더 발전시켜야 하고 성장시켜야 할 아젠다를 정하고 목표들을 설정함으로 도착할 목표지점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 개인적으로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실행 전략을 개발하고 코치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상한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건강을 위해 실행전략팀(8-10명 내외)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실행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목표지점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인지하여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실행전략을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실행전략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재진단을 통해서 코칭 과정을 평가하고, 발전의 성과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건강한 목회와 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담임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회와 섬기는 교회를 객관적으로 건강을 진단하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문 코치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틀이 있고, 현재의 상황이 파악이 되면 더 나은 공동체와 목회를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개발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생기기 때문에 목회 여정에,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목회 코칭, 건강한 교회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교회에 목회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석정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세미나 과정이 필자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 주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코칭 세미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는다.